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국청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영원히 머물 그 때를 바라보며

신윤식

흐르는 저 물이면 어떠랴
스쳐가는 저 바람이면 또 어떠랴
어차피 모든 것
제 자리에 머물지 않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인 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흘러가는 물을 붙잡아보아라
스쳐가는 바람도 붙잡아보아라
어느 것 하나 잡히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본성 그대로 흐를 뿐이라

물은 물처럼 흘러가고
바람은 바람처럼 불리어가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나도
지금 그대로가 아닌
시들어 가는 꽃일 뿐이니
물도 바람도 나도
마음속에 떠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좋은 것으로 여긴 것 모두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니
무엇에도 미련두지 않고
그냥 흐름 따라 보내는 것이라
영원히 머물 그 때를 바라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12.1

발행호수 제21권 48호

예 수님은 문둥병을 고침 받고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두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8절)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구원선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구원선포라는 것입니다. 구원 선포는 메시아의 시대,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증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19절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이 등장한 것도 예수님의 구원 선포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은 문둥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 민족과 우주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기 오시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메시아의 자질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는 민족과 우주적인 구원의 징조 또한 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모든 병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침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고, 악한 세력에 의해 붙들려 있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은 단지 신비한 기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통치에 악한 세력도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미 그들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 역사되고 있는 사

주일오전설교

눅 17:26-37

인자의 때에도

건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역사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민족과 우주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눈에 예수님의 역사는 단지 선지자적인 능력으로 보였을 뿐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눅 11: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는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곧 예수님이 왕으로써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귀신의 왕 비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들이 보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했기에 예수님의 역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만류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강력한 통치 행위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곧 악한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이며 구원 역사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25절)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굴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인자의 날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자의 날보다 먼저 있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자의 때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기 전까지 계속되어 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26절의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노아의 때에 누가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행위에 관심을 두었을까요? 심판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들에게 노아의 행위는 조롱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돈이 되지 않고 양식이 되지 않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 노아가 어리석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다면 노아는 분명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전제한다면 노아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에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즐거움의 전부였을까요? 그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심판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행복을 이루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자의 때를 살고 있고 인자의 때의 형편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노아의 때와 같고 룯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긴다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세상은 이런 형편에 있다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키지 말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나타나시는 날이 이르면 세간은 관심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그 때가 되면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며 우리가 모든 관

심을 두어야 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룯의 때처럼 세상은 마지막 때를 무시하기에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지금 인자의 때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받으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고난의 길로 가도록 이끄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자의 행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할 수 있고 그 앎은 어떤 고난에서도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러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은 소경이었던 우리가 눈이 열림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고, 죄로 인해 저주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나아와 감사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고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며 드러내고 계시는 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본다고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노아와 룯의 때처럼 모든 관심이 현재의 삶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싶어 합니다.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의 상태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고파는 것도 좀 더 부를 쌓기 위한 노력이며 집을 짓는 것도 더 좋은 집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욕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자의 고난은 관심 밖의 일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인자의 일 또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자기 욕망을 채워줄 인자에게로 관심이 향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 마혹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 하시는 날에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가 이르게 되면 세상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는 세상을 돌아보기보다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 두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뜻의 처를 기억하라**” (32절)는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한다면 세상 것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통치보다는 생존을 위한 도우심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하는 버려짐을 당할 자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통치 또한 보지 못한 자입니다. 반면에 데려감을 얻는 사람은 세상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자신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에 뜻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주여 어디오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어디에서 그러한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마 심판이 일어날 장소를 미리 알아서 그곳은 피하고 싶은 의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고 하십니다. 주검 있는 곳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곧 죽은 자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곧 주님이 말씀한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제자들은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주검입니다. 주검인 우리를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주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의 통치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 45: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숨어 계시다는 것은 침묵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일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병 고침이나 문제 해결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함께 하심과 사랑하심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 하지만 그 어떤 기적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생각으로 굳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나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분으로 말하는 것은 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 되게 하신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일이며 그 뜻은 유다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멸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 안에서 유다가 무너질 때,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통을 겪을 때에도 마치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곧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숨어 계시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무너짐과 고통이 외적으로 보면 큰 불행의 사건이지만 오히려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통로로 그들 앞에 펼친 은총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신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막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에 붙들

주일오후설교
시 141:1-10

죄와 기도

(145강 11.10일 설교)

려서 현재의 형편에 따라 그 마음 또한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의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고 자기 힘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41편의 시편 기자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서 울무와 함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을 해하려는 악한 자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장소에 계시다가 신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늘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신에게 속히 오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이 처한 힘든 형편에서 구해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기를 원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처한 힘든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부르짖는다는 것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기도를 듣게 하시고 응답을 받기 위한 자기 열정의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믿음에 있고자 하는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 자기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 소리쳐 고향치듯 외치는 것을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인간의 종교성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소리 내어 외치는 것을 열정적인 기도로 여기며, 그러한 기도에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2절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분향과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의 기도가 분향과 제사같이 되기를 구합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신 뜻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처한 힘든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자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성에 의한 기도와의 차별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3절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는 내용에서 잘 나타납니다. 마치 욕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입술을 지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질 수 있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유혹은 항상 진수성찬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나무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고 결국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한 것처럼 죄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도록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자는 의인이 자신을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자신의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의인이 자신을 충고하고 책망할지라도 그 모든 말을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원인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며 충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말을

은혜로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는 것은 자신을 책망했던 사람들이 재난을 겪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보복심이 앞서게 됩니다. 나를 책망한 것을 기억하며 나 또한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이러한 본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신자의 기도입니다.

6,7절을 죄의 결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신자는 보이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기도 죄를 따라 행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죄의 유혹에는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8절에서 주께 피한다고 하고, 9절에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에 처한 자신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알하심과 응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을 견딜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함께 하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고난과 어려움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문은 유브라테 강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애굽이 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절을 보면 이 예언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 4년에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하여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47장에서는 블레셋, 48장에서는 모압, 49장에는 암몬, 헤스본, 에돔, 다메섹, 게달, 하술, 50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패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면 ‘애굽과 바벨론 누가 더 강한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힘과 상관없이 애굽은 패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4절을 보면 애굽 군대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3절에는 방패를 준비하고 4절에서는 기병을 준비하는데 당시 애굽은 말이 많아서 기병이 강했다고 합니다. 애굽도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애굽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전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이치에서는 강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자신을 강자로 만들어 주는 힘이 되는 돈과 권력에 마음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생각하면 세상의 이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약자가 승리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승리할까요? 하지만 애굽을 무너뜨린 바벨론 역시 결국 무너집니다. 때문에 지금의 승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예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부요와 강함이 복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은 유다의 멸망 이전에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유다의 멸망 이전에 유다가 강대국으로 여기며 부러워했던 유다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방 나라가 누리는 부요와 힘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부러워하는 이방의 부요와 힘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의 부요와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부요와 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백성에게 부요와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요와 힘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의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추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

수요일설교

렘 46:1-12

애굽 멸망에
대한 예언

(100강 11.20일 설교)

빠하시느 참된 백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강한 애굽이 무너지는다는 예언을 불신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되도 좋으니까 이방 나라처럼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무너졌을 때 유다에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피신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애굽의 부요를 향한 집착이 그들을 그 길로 이끈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는 애굽을 포함한 모든 이방 나라는 무너진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말씀 안에서 이방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인 현실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무지이며 오늘 우리의 무지이기도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현실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의 부요와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심판이라는 뜻을 정하셨다면 현재의 강함과 부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신자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리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이나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고 말합니다. 방패와 기병을 준비했지만 그들의 준비는 모두 허사가 되고 결국 패하여 도망하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일은 우리의 준비와 자신감으로 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런 준비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지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구하는 일에 뜻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지키는 것은 세상의 부요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말씀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부요와 힘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세상

의 부요와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알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가 그리스도로 인해 부요하고 그리스도로 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내 종 아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아람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고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처럼 이방 나라들은 다 멸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백성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징계 받아야 할 죄 있는 자일뿐입니다. 그런 그들을 사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고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유대처럼 자기 생존 문제를 앞세우며 눈에 보이는 부요와 힘을 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부요와 힘을 희망으로 삼으며 세상의 악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자신의 욕망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의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죄 있는 자고 징벌을 받아야 할 자가 우리 자신임을 염두에 둔다면 세상의 끝에서 우리를 붙잡아 구출하실 분은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부요와 힘이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그것으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82장
교 독 : 77(요3장)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493장
성 경 : 눅 17:26-37
말 씀 : 인자의 때에도(8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94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3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67장
기 도 : 김옥분 집사
찬 송 : 303장
성 경 : 시 144:1-15
특 송 : 3구역
말 씀 : 복이 있는 자(14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99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102강)

■ 교회소식 ■

1.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황경영 권사

이단 ⑤9

워치만 니가 말하는 사하심의 네 번째는 왕국의 사하심이다. 이는 마 18:23-35절에 임금으로부터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은 종이 백 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동료가 빚을 갚지 않자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둔 것을 알게 된 주인이 탕감 했던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둔 내용을 근거로 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 18:35)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행함에 따라 징벌을 하신다는 것이다.

워치만 니는 이것을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 또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 ‘주의 종’이라 칭함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형제를 용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 예수께서 돌아 오실 때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다는 것이다. 영원한 구원 안에 있기에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행한 것에 따라 징벌을 받으며 천년왕국 시대에서의 신자의 위치는 지금의 행위에 달려 있기에 행함에 따른 징벌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왕국의 사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용서로 구원을 받은 신자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에 대한 징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신자로 하여금 자기 행함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행함에 따른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는 구원 받았다’는 안일함보다는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구원 받은 자라고 해도 행함에 따른 징벌이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 징벌은 무엇인가가 의문이다. 구원 받은 자라고 해도 징벌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주가 오시기 전 지금의 세대에서 자기 백성을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즉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징벌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은총의 사건인 것이다.

주가 오신 후 신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행함에 따라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 징벌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지 부터 생각해야 한다. 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신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함에 매인 인간적 생각일 뿐이다.

마 18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모독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것은 엄청난 빚을 탕감해준 임금의 자비의 가치를 묵살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라는 말은 우리의 무거운 죄를 용서하신 용서의 가치가 우리 속에 담겨 있는가를 묻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설령 가벼운 잘못은 용서할 수 있다고 해도 내 가족을 해치거나 큰 잘못을 범한 상대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존재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저주에 속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아는 신자가 용서의 가치를 알 수 있고, 그 중심에 용서의 가치가 살아있는 그에게서 용서가 나오는 것이다.